



可知論(“Known 思想”)—科學과 宗教의 架橋

“Knownism”—Bridge-Building Philosophy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金 恒 默*
Kim, Haang Mook

ABSTRACT

The writer has worked out his original philosophy both scientific and religious, which he calls “Knownism”. The new thought states; the word “known” in “knownism” means “already well-informed in the providence” about the essence of the things, and the true state of the reality, hence the knownism, as the existence of God is set forth as a premise. The knownism is a philosophy unified reasonably the science and the faith into one, for the humans can perceive and realize the essence and the true state, and authorize the truth transcending the experience by the scientific method.

The new thought of the knownism is a bridge-building between the natural science and the religious faith. The idea explains that the life is the process to pursue the essence of the things and the god, and the truth is immanent in the original nature of things and in God’s sphere. This thought is a philosophy of possibility to solve the paradigms-to-be such as thinking, faith experience, and supernatural power, so that it presents a vision in the human life as a profitable religious science philosophy. The knownism is much different from agnosticism, skepticism, empiricism, and gnosticism. The grace of God may be detected differently from the supernatural power.

The new dark clouds overspread abruptly the summer sky are not new ones but originally derived from worn-out water drops. Thus those are called the old clouds. The Korean word “known”(老雲: 노운) of which pronunciation is same with the English “known” means the old clouds, hence also the name, Knownism. The root of the new clouds is detectable from the preserved old clouds. The old clouds symbolized in the paper indicate the essence and the principles of the things and the fittest, or the key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 in the epistemology, believing that everything has its own, proper nature, the writer sums up his theory by insisting that the humans have to find out the “old clouds” or the “known” in knownism to live eternally either in this world or in other dimensions, though the human beings are transformed into the other phases of life.

* 産業應用技術士(應用地質), 理學博士(釜山大學校 自然科學大學 地質學科 教授)

* 筆者是 英國 캠브릿지 國際傳, 記錄센타에서 1987 年度에 選定한 37 名의 國際知性人에 뽑힌

The writer proclaims through the ideas for the United Nations to fortify the Confederate System of World N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world peace and the future of the humans.

提起(Institution) · 定義(Definition) · 考察(Discussion)

筆者는 1981年과 1988年度에 可知論(Know-nism: 老雲思想)이라는 科學隨筆(Science Essay)을 發表한 바 있다. 可知論이란 神의 存在를 認定할 뿐 아니라 神을 “알 수 있다”는 立場에서 事物의 本質이나 實在(Reality)의 眞相을 認識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며” 神에게는 이미 “알려져(Known) 있으므로” 經驗 뿐 아니라 經驗을 超越하는 眞實도 認定함으로써 合理的으로 自然科學과 宗教(信仰)를 合一시키는 思想이라 할 수 있다. 본 可知哲學은 自然科學과 宗教를 잇는 架橋로서 새로운 理論이다. 事物과 神의 本質을 規明하고 眞理를 찾는 過程이 人生이며 眞理는 事物의 本性和 神의 領域에 內在해 있다는 것이다. 難題가 있더라도 探知의 노력을 함으로써 “풀 수 있다”는 哲學이므로 희망과 비전(Vision)을 주는 有益한 宗教的 科學哲學이다.

可知論은 神의 存在는 認定하면서도 그 本性을 모른다하고, 事物의 本質이 있음을 認定하면서도 認識할 수 없다고 하는 不可知論(Agnosticism: Know-nothingism)의 답답함에서 떠나 있다. 이 可知論은 人間의 能力으로는 眞理를 把握할 수 없다하고 神의 存在의 與否조차 懷疑하는 懷疑論(Skepticism)과는 더욱 먼 거리에 있다. 可知主義는 認識의 源泉을 오직 經驗으로 보는 經驗主義(Empiricism)를 超越해 있다.

宗教가 科學을 否認하거나 科學이 宗教를 否定할 수 없음은 眞理의 屬性이다. 科學도 神의 被造物이다. 우리 人類는 그동안 宗教와 精神界의 核이라 할 수 있는 靈魂(Soul)과 形而下學의 對象인 物質(Material)을 分離하여 研究하고 思索하여 왔으나 兩者는 相互 認定되고 하나로 錯綜되어 있음을 밝혀 相互依存의 眞面目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科學의 任務라고 생각된다.

科學이 새로운 眞理를 찾아냄은 神의 領域을

侵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形而上學에 있는 神을 理解하게 되어 創造主의 오묘함에 경탄을 表하고 더욱 接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科學을 한다는 것은 神의 能力을 探索함이요 眞理 把握을 追求(Pursuit)하는 哲學이며 따라서 비약한다면 神學을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信仰인이 기도에 의해 神에 接近한다면 科學은 探究(Investigation)에 의해 神性에 接近하는 것이다. 方法에 差異는 있으나 追求하는 바는 하나이다.

사실 科學을 연구하는 것은 神의 屬性중 一部를 연구하는 것이기에 이런 의미에서 信仰이요 神學과 같아서 하면 할수록 참 信仰인이 되는 것이다. 誠實한 科學徒는 眞實한 信仰의 자세를 갖게 된다. 科學徒의 巨星 Einstein(1879~1955)은 어느 信仰인도 감히 追從하기 힘든 信仰인이라고 보아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는 神의 創造神秘를 어느 神學者보다도 가장 많이 據得한 분이다. 科學徒가 갖는 疑問點의 應答은 이미 自然에 存在해 있으며 神의 뜻속에 있다. 감춰져 있는 神秘를 糾明해 낼수록 그 만큼 神의 뜻을 알게 된 것이며 神性에 [接近한 것으로 神의 能力아래 人間의 無力함을 實感하게 되므로 알면 알수록 謙遜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可知論은 謙遜의 哲學이다. 歷史의 考察을 통해서 보더라도 神學者나 宗教家는 科學을 하지 않았고 科學者는 神學을 소홀히 해음으로써 神學과 宗教는 科學과 別개의 것으로 다루어 왔으므로 이 문제는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語源(Etymology)

한 여름 갑자기 나타나는 소낙비의 먹구름은 금방 나타났다고 하여 이제 생겨난 새로운 구름(新雲)이 아니라 그 本性은 알고보면 太古 때부터 存在해있던 작은 물방울들의 '모임인' 오래된 구름이란 뜻에서 이를 “老雲”이라 불렀다(金, 1981). 이 구름의 實例에서 먹구름이라는 걸보기

現象은 다름아닌 老雲이라는 고유한 本質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可知論을 “老雲思想”이라 부르고 英語로는 Know의 形容詞形 Known(國語 發音으로 老雲)에 -ism을 붙여 “Knownism”이라 한 것이다. 英語의 Knownism을 可知論으로 번역하여 새로운 思想 즉 可知思想, 可知論, 可知哲學이 된 것이다.

生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구름 한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 이로세
(通度寺 東元스님)

意義(Significance)

老雲哲學(Knownism)이라고도 불리우는 可知論은 眞理와 本質이 既存하는 것이므로 攝理속에는 『알려져 있다는 哲學』이다. 따라서 提擧된 問題는 結局 解答이 探知(Detection)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個人이나 國家가 당면하는 모든 問題에는 풀릴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意味에서 “可能性의 哲學”이라 할 수 있다. 個人이나 國家가 逢着하는 悲慘, 不幸, 苦難을 克服할 수 있는 秘訣이 있다고 했으므로 落望이 있을 수 없고 꿈을 심어주는 可能性의 哲學인 것이다.

人類은 이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分揀할 수 있게 되었다. 科學을 통해 有限한 宇宙를 알게 되었고 遺傳工學에서는 쥐를 고양이 만큼 키울 수 있고 돼지를 소만큼 키울 수도 있게 되었다. 그만큼 神의 創造能力에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고 萬物은 科學的으로 創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宇宙가 誕生되기 以前에 存在했던 에너지의 根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며 人間이 아직 遺傳工學的으로 人間을 創造할 수 없는 難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問題가 漸次 해결될 追勢에 있으며 成功이 된다면 人類은 그만큼 神을 알게 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잘하는 存在로 浮上될 것이며 創造論에 親近

한 存在가 될 것이다. 한 발자국씩 神 앞에 다가서는 生活이 人生이다. 生이란 무엇이며 死란 무엇인가? 本質은 무엇이며 眞理란 무엇인가? 成功이란 무엇이며 名譽란 무엇인가? 失敗란 무엇이며 不幸이란 무엇인가? 世上의 모든 問題에는 解答이 있다. 이 解答을 찾아 헤메는 生活이 人生이라면 人生의 定義는 “問題”를 풀어가는 行爲, “解答”을 追求하는 行爲라 할 수 있겠다.

人類未來의 不幸을 막고 世界平和를 維持하기 위해 國際聯合의 聯邦制度는 더욱 強化 되어야 할 것이다.

“渡人船”(Ferryboat)

中共東北(滿洲를 指稱)에서 뛰어난 젊은 書道家 두여명(竇黎明) 氏가 쓴 붓글씨 족자(幀子) “渡人船”이라는 作品을 滿洲韓人들의 元老인 安謀氏로부터 그의 母國訪問 선물로 받았다. 安生은 1987年 末부터 韓國에 三個月間 母國訪問한 貴人으로서 韓族 自治州 吉林省 州長인 黃大林 氏의 妻男되는 분이며 大學에서 經濟學을 專攻한 知識人으로서 中共의 과거 激動時代에도 鄧小平(Teng Hsiao-ping: 1905~)의 路線을 追從한 분이다.

中國에서 “渡人船” 作品은 300元(韓貨로 약 70,000원 : 한국의 화폐가치로는 수십만에 해당)의 高價로서 中共大學教授 월급의 약 1.7倍의 價格이다. 생각보다 비싼 價格을 가진 作品을 선물로 받고 보니 이 作品에 대한 鑑賞을 도저히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渡人船을 번역하면 “사람이 건너는 배”, “사람을 건너주는 배” 즉 “나룻배”에 지나지 않는다. 나룻배라고만 하고 講義室에 걸어두려니 싱거워 참을 수 없어 그 나름대로 意味를 찾아 보니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 新學期 첫 講義時間에 學生들에게 鑑賞의 所感を 傳達하게 되었다.

渡人船이라는 이 나룻배는 강 건너 마을이나 市場을 갈수 있도록 準備된 渡船場의 거룻배도 아니고 洛東河口 乙淑島 갈대밭 사이를 다니는 노젓는 나룻배도 아니며 淸平湖에 띄운 浪漫的인 보트도 아니다. 이 나룻배는 사람이 살아가는 “成功的 境地”, “道人的 境地”로 가는, 그리

고 죽어서는 “天堂” “淨土” “極樂”으로 실어다 주는 특별한 “나룻배”라 紹介했다. 研究室과 도서관에 보관 되어 있는 藏書는 바로 이 나룻배이며 누구든지 이 나룻배를 타지 않고는 물에 빠진 상태에서 救援(Relief) 받을 수 없고 강 건너(彼岸) 있는 樂園의 境地로 갈 수 없다. 이 苦難의 江을 건넌다는 것은 求道者(벉사공)와 冊을 통하여 教育을 받는 行爲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룻배는 서적이나 教育 때로는 教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信仰生活이나 大學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나룻배는 教育”이라고 하였다. 講議室은 千金의 斬新한 空氣가 감도는 重厚한 雰圍氣로 변한다. 先驅者란 이 特別한 배를 탄 사람이며 이 배는 사람이 사람을 건너는 배일수도 있을 것이다. 人間이 남보다 앞서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特別한 배를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남으로부터 영혼을 얻기만 하는 생활을 하다가 건넌 다음에는 영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삶으로 바뀔 것이다.

思惟에너지(Energy of Thinking)

1988年 2月 어느날 밤 3時경 筆者는 書齋 寢室에서 自身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57cm 길이의 白色의 밝은 2개의 電球를 켜고 산뜻한 氣分으로 잠시 동안의 默想에서 평소의 思索을 回想해 보았다. 보이지 않는 人間の 思想(思考, 想像, 意志, 瞑想, 마음)은 地球에서 太陽, 星, 銀河水, 無限大의 宇宙 끝까지 往復도 하고 몇바퀴라도 돌다가 다시 돌아온 들 所要된 時間은 몇 秒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은 때로는 방바닥을 기어다니다가도 어느새 하늘 높이 날으기도 하고 망망대해를 떠다니기도 하며 漆黑의 깊은 海底에 潛水하는가 하면 어느새 에베레스트 山頂을 기어 오른다.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幸福한 旅行을 하다가도 어느 사이에 女人의 젖가슴으로부터 헤라클레스의 젖가슴을 旅行한다. 現實世界로부터 天堂(Heaven)·極樂(Elysium)·地獄(Hell)과 煉獄(Purgatory)을 둘러보는데도 그냥 삼시건만 된다. 생각은 일요일의 예배를 보다가 하면 예루살렘의 말구유에

도 갔다가 부처님의 히말라야 기슭 보리수(菩提樹) 나무 밑을 訪問하며 공자님의 서당을 다녔지만 걸리는 시간은 잠시 동안이던 가능한 것이다. 그뿐아니라 생각은 나의 研究室에서 서울이나 東京의 研究室, 太平洋을 건너 美國의 어느 研究室에 나들이를 하며 韓國의 캠퍼스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공, 소련의 캠퍼스를 날라다닌다. 이렇게 空間을 旅行하는데 소요되는 時間은 아무리 못잡아도 秒速 地球를 7.5 바퀴(30km/sec)도는 빛(光)보다는 빠른 것이었다. 全世界 여러곳에서 同時에 나타난다는 비행접시(Unidentified Flying Object)는 이러한 思考次元의 超光速物體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 人間の 思考는 親友들과 즐거운 환담을 하다가도 搖籃에서 무덤까지, 350 만년 전의 人類가 出現하던 時代로부터 1억년전 이땅을 포효(咆哮)했을 공룡의 時代로, 5억년 전의 삼엽충의 時代에서 37억년전 微生物이 地球上에 出現하던 時代로, 46억년전 地球가 생기던 時代에서 宇宙가 創造되던 150억년 前의 時代로 旅行하는 수도 있다.

생각(Denken)은 空間과 만찬가지로 時間에 있어서도 順序가 아무리 바뀌도 問題가 되지 않고 自由自在로 旅行할 수 있다. 이와같이 생각이 時間界를 달리는데 소요되는 時間은 역시 아무리 못잡아도 빛(光速) 보다는 빠른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서 생각은 空間의으로 멀거나 時間的으로 오랜 것과는 전혀 無關하게 時空을 超越하여 同一한 時間內에 달릴 수 있는 存在이다. 즉 생각은 時空을 超越한 存在이다. 빛보다 빠른 物質로서 中性子 光線을 들 수 있고 이보다 빠른것이 있다면 생각이라는 物質일 것이다. 이 생각이라는 物質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승에서나 저승에서 비록 相을 달리하나 永遠不滅한 存在이다.

人間은 생각과 意志로 生活을 하며 作品을 만든다. 다만 생각과 生活사이에는 일(Working)의 過程은 있다. 생각은 그 에너지를 수단으로 하여 일을 낳고 일은 作品을 낳는 것이다. 創造主는 그의 意志(생각)에 따라 에너지로부터 宇宙라는 作品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人間이나 創造主의 意志라는 存在는 도대체 무엇인가? 筆者는 上述한 바와 같이 “생각”이란, 科學이라는 거울에 비

추어 볼 때 어떤 종류의 빛보다 빠른 에너지라고 物質이라고 想定케 되었다. 이 때의 생각은 마음이나 靈魂과 같은 것이다. 실달다(悉達多)가 35세에 깨달은 “宇宙가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이 宇宙이다”라는 眞理로부터 그는 부처(佛陀)가 되었으나 오늘날 科學은 이 “마음”의 本質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佛經을 읽지 않고도 마음이 곧 宇宙라는 因果律의 眞理를 깨달은 사람은 現代나 歷史속에서 상당한 數에 이를 것임을 想起해 둘 필요가 있으나 佛陀는 그 이상의 세계 즉 無意識의 眞理를 깨우쳤다고 한다.

物理學者들에 의하면 太初의 宇宙는 에너지만 packed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에너지는 어떤 狀態의 核力인지 電氣力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보다 훨씬 小규모의 宇宙에 集中되어 있었다(Localized)고 한다. 이 에너지의 小宇宙가 에너지의 過多濃蓄現像으로 인하여 한 순간 大爆發(Big Bang Theory)現像이 일어나 物質의 創造 즉 별들이 있는 現在의 大宇宙가 創造되었다고 한다. 에너지가 創造의 意志로 나타난 것이 이 宇宙라 한다면 物質과 에너지는 同質異像(Polymorphism)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無限大의 宇宙를 旅行케 해 주는 “나룻배”는 Apollo와 같은 宇宙船이 아니라 “생각” 혹은 “靈魂”이라 부르는 “나룻배(渡人船)”이다. 創造主 하나님은 이러한 에너지를 素材로 그의 뜻에 따라 이 宇宙를 만든 것일 것이다. 創造主는 결코 無로부터 이 宇宙를 만든 것이 아닐 것이다. 筆者는 思考가 에너지임을 確信하고 있고 科學적으로 立證되기도 한다. 思考(思考)이라는 에너지의 科學的 確認은 可知論의 한 範例(Paradigm: Thomas S. Kuhn, 1962)가 될 것이다. 즉 누구나 認定하는 普遍妥當한 眞理 즉 Paradigm이 될날이 올 것이다.

超能力(Supernatural Power)

超能力者들은 그들의 意志力으로 무거운 汽車를 움직이고 사람을 공중 높이 뜨게도 한다. 念力으로 손을 대지 않고 어떤 物體를 움직이게도 한다. 수년전 超能力者로 알려진 유리 겔라는 그의 念力으로 韓國의 TV 시청자들에게 숫가락을

굽히는 實驗도 成功한 바 있다. 빛(光)의 本質은 粒子和 波動이라 알려져 있으나 이 思考라는 存在는 어떤 狀態의 에너지로 存在하는지 언젠가는 밝혀질 날이 올것으로 기대 된다. 모든 精神的 活動의 근원이 되는 생각 즉 靈魂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를 떠나서도 存在할 수 있으므로 영혼은 不滅의 에너지 存在임을 믿을 수 있다.

超能力(Supernatural power), 念力(Psychokinesis), 異蹟行爲(Mighty works), 傳心術(Telepathy), 催眠術(Mesmerism), 氣功(Spirits work) 등은 분명한 現象이 겠으나 오늘날 科學은 그 眞像을 糾明해 내지 못하고 있다. 텔레파시(傳心術)를 認定은 하면서도 科學은 그 本性을 糾明하지 못하고 있다. 胎夢이나 山蓼에 대한 선몽, 體感機能에 의한 地下水脈 찾기 등은 實際現象임에 틀림이 없겠으나 自然科學과 소련에서 가장 발달했다는 心靈科學도 이 問題의 正鵠(정곡)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中國의 古代醫術에는 치료에 氣合을 活用하는 氣功 치료가 있어서 患者에게 큰 효험을 보았으며 우리나라에도 氣院이라는 치료원이 있다. 氣功醫師는 自己의 氣를 患者의 氣에 傳達하여 고통을 치유하나 現代科學은 이 氣功의 神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類型의 實例는 많이 있을 것이다.

實際 現象에 대한 不可思議의 無知는 주변에 많이 있다. 다른 사람의 속 마음을 看破하는 讀心術(Mindreading)이나 透視力(Clairvoyance), 將來에 일어날 事實을 미리 認知해 내는 豫知力(Precognition)도 있다. 노스트라다무스(Nostadamus)의 豫知力은 世界的으로 유명하다. 이 모든 것들은 科學이 발달함에 따라 그 本質이 確實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 된다. 鍊金術이 現實로 나타나듯이 말이다.

筆者는 大部分의 超能力 現象도 에너지의 科學일 것이므로 形而下學的, 實測的, 定量定性的 科學으로 등장 할 未來가 到來하리라 본다. 全知한 神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므로 즉 解答이 이미 存在한다는 意味에서 이는 可知論(Knownism: 金, 1981)의 範例(Paradigm: T.S. Kuhn, 1962)가 될 수 있을 것이다.

信仰體驗(Faith Experience)

예수님의 異蹟을 보면 밤에 바다 위를 걸었으며, 베드로를 물위에 걷게 했으며, 醫術을 使用하지 않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소경을 눈뜨게, 귀머거리를 들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事實들을 幻想現像이라하고 믿지 않다가도 所謂 말하는 超能力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超能力 以上일 것이므로 믿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異蹟은 信者가 아니더라도 이제 겨우 2,000年 정도 밖에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異蹟은 宗教에서는 神의 恩寵이라 한다. 그러나 異端基督敎派 노우시스派의 異端說(Gnosticism)에서는 超能力(Supernatural power)에 관련시켰고 靈界의 知識(靈知: Gnosis)의 개념으로 기독교의 本質을 說明하려 했다.

여기에서 最近들어 겪은 筆者의 體驗(Experience) 하나를 紹介할까 한다. 어느날 밤 2時頃 獨房의 잠자리에서 睡眠을 깨어나니 허리部分의 腰痛을 비롯하여 온 몸이 拷問을 받듯 참을 수 없는 痛症의 掩襲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몰랐다. 苦痛이 너무나 심해 하느님께 마음 속 묵상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따르는 이 使徒를 苦痛에서 解放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중 이 짧은 기도문의 절반도 되뇌이기 전에 그토록 심각했던 苦痛은 一瞬에 사라지고 말았다. 筆者는 實際 이와 類似한 體驗은 平素 늘 겪고 있다. 論文을 쓰거나 글을 쓰기 위해 정신적 勞務을 하면서 冊床앞에 앉았노라하면 간혹가다 腰痛의인 고통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筆者가 잠시 동안(아마 수초에 불과) 하나님의 恩寵을 생각하면 거짓말 같이 온 몸이 개운해 지곤한다. 이것은 筆者가 하는 모든 생활과 科學研究活動의 바탕이 信仰에 기초된 것으로 해석 되어야 옳을 것이다. 信仰人이 아닌 경우 이러한 現象을 自己催眠의 精神療法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恩寵이던 精神力이나 催眠術이던 이 現象이 存在함에는 틀림이 없다.

恩寵은 信仰이겠으나 精神力(催眠術)은 科學

이다. 信仰과 科學은 이와같은 類質同像(Isomorphism)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現象의 本性은 醫學的으로 判明되어 있지 않은 實情에 있다. 이 事案(Case)도 不可知論(Know-Nothingism)에 남겨 놓기 보다 可知論(Knowism)의 範例(Paradigm: Thomas S. Kuhn, 1962)가 된다면 人類는 福받은 存在일 것이다. 恩寵과 超能力의 關係를 糾明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唯物論 考察(Discussion of Materialism)

칼·맑스의 唯物論은 “宇宙의 根本이 物質이며 靈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라”는 思想이다. 現代物理學에서는 物質이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또 다른 狀態의 物質임이 測定確證되었다. 物質이 에너지임은 原子彈 實驗에서 證明되었다. 原子彈의 威力은 少量의 放射能鑛物이라는 物質이 消滅하여 생긴 에너지이다. 아인슈타인의 公式는 $E=mc^2$ (E : 에너지, m : 粒子的 質量, C : 光速)으로서 에너지와 物質은 相對的임을 밝혀냈다. 그뿐 아니라 素粒子的 하나인 電子 1개가 消滅하면 0.511MeV(megaelectron volt)의 에너지가 생겨남이 밝혀져 있다. $E=mc^2$ (1개의 電子消滅)=0.5111Mev. 한편 에너지의 하나인 γ 線(電子波의 에너지 크기는 1.022MeV)은 消滅하여 電子와 陽電子의 物質로 바뀌는 雙生成을 띄고 있음이 完全히 證明되어 있다. 즉 雙生成의 過程에서 에너지의 物質化가 이루어진다. γ (감마선) $\rightarrow e^-$ (電子) + e^+ (陽電子).

上述의 物理學的 意味에서 唯物論의 “宇宙의 根本이 物質이라”는 理論은 가장 完璧하게 보인다. 그러나 “靈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說明에서 靈의 問題는 前述한 바와 같이 靈이란 精神과 思考活動 즉 마음의 實體로서 에너지임이 밝혀진 이상 잘 못된 理論이다. 實際 마음으로 생겨나는 腦波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實驗室에서 測定되고 있다. 마음은 物質이므로 마음이 하나님일수는 없다. 맑스는 靈이나 精神의 物質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 世上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잘

못된 神觀을 가진 것인가를 생각하면 自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다.

한편 ㅁㅅ가 宇宙의 根本을 “하나님도 아니라”고 한 것은 靈보다 더 높은 次元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誤謬였다. 人間이 人間の 次元을 논할 수 있겠으나 神的 次元은 차라리 모른다고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自然法則 自體를 主管하는 神的 世界는 神的 次元이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ㅁㅅ는 靈과 神的 世界에 대해서는 오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님은 無로부터 에너지를 創造했으며 이 에너지를 所有한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 에너지를 材料로 自然法則(因果法則)을 통하여 宇宙物質을 創造한 創造主인 것이다. 이와같은 能力을 가진 人間이 있다면 그가 救世主이다. 이 문제의 해결없이 내가 救世主라 主張하는 사람이 있다면 神的 次元의 導入없이는 믿어지지 않는다. 聖人들을 除外하면 우리 人類는 神的 世界를 모르는 상태에서 一生을 끝내고 있는 것이다.

人間이 確認할 수 있는 하나님의 被造物에는 物質界와 精神界가 嚴存함이 證明되었으므로 ㅁㅅ의 唯物論은 그 一面만 認定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人間活動의 基準도 物質獲得에만 目標을 둔다면 人生의 精神的 幸福感, 보람 및 名聲으로부터 얻어지는 滿足感을 說明할 수 없다. 현재 中共에서 호텔 從業員이 大學教授보다 月給이 많지만 사람들은 大學教授를 選好함은 唯物論의 矛盾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돈이라는 物質이 人間評價의 基準이 될 수 없는 것이 確實하다.

“宇宙는 物質로 되어 있고 物質이 萬物의 本質이며 이는 하나님의 主管아래 있다”는 것이 可知論의 說明이다. 따라서 科學이나 事業, 神學이나 感情에서 찾아지는 各種의 眞理는 그 自體가 하나님일 수 없고 모든 것을 包括하고 있는 하나님의 眞理와 信仰의 一部일 뿐이다. 精神이라는 物質의 作用을 통하여 깨달은 眞理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壁에 부딪치고 만다. 이 絶望의 壁을 克服하는 길은 科學이나 事業, 神學이나 感情으로부터 얻어지는 眞理를 超越하

여 하나님이 存在함을 信仰을 통하여 認識하는 것이다.

맺음 말(Closing Remark)

老雲思想에서 神을 알 수 있다 함은 因果法則(Kausalgesetz)의 世界를 主管하는 神的 世界와 神만이 알 수 있는 神的 世界 중 前者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地震과 火山의 災害, 山頂部 岩塊沙汰에 의한 家屋破壞, 端宗王陵을 향해 굽어 있는 주변의 소나무 숲, 夏季結氷現像 등은 筆者 自身の 研究에 의하면 迷信의 現像과는 전혀 다른 因果法則에 의한 現像임을 確認한 바 있다. 自然法則을 主管하는 이와 같은 神的 뜻은 人間이 努力하면 充分히 알 수 있고 이러한 神을 알 수 없다는 思想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러나 宇宙를 創造하고 또 破壞할 수 있는 全能의 神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科學이 발달함에 따라 神的 屬性이라 생각되었던 많은 部分이 因果法則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로 점차 밝혀질 것이다. 동시에 神學도 발달추어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本文에서 論述한 思惟, 信仰體驗, 超能力의 本質이 科學적으로 分析되어 學問化되고 이들 推定範例(Expected Paradigms)에 대한 實存이 具體적으로 解明되어 지는 날 이 科學隨筆은 科學과 宗教를 하나로 體系化한 새로 태어날 學問에 자그마한 寄與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地質學의 三大眞理 중 하나인 地板構造論(Plate Tectonics)은 프린스톤大學 교수인 Harry H. Hess(1906~1969) 박사의 科學엿세이에서 提起되어 드디어는 地質學의 새로운 眞理(Paradigm)가 되어 世上의 빛을 보았으므로 筆者는 科學研究의 考察로부터 얻은 理論發表의 場으로서 이 科學엿세이 欄을 결코 輕視하지 않고 싶다.

본 論壇을 作成함에 도움이 되었던 분들은 박선목 哲學教授, 한창길 物理學教授, 정운혁 物理學教授, 金亨錫 哲學教授였다. 本文은 釜山地球科學研究會 年例 세미나에서 發表된 바 있다.